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레드바이오 관련 기업 협약 체결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본부장, 정인성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 장봉근 JBK LAB 회장, 김홍중 인헨스드바이오 대표,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 및 업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 원대병원 전공의 63%가 ‘업무 중단’

전공의 126명 중 80명 사직서... 남원의료원 등도 참여
전북대 의대생 646명도 집단 휴학일 제출... 아직 미승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로 전북지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병원 소속 전공의 63%가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낮 12시 기준 원광대 126명의 전공의 중 80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의 수술실 가동률은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전공의 중에서도 마취과와 부재가 심각하다.
전북대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총 25명이 있다. 하지만 전공의만 14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 비상 진료 체제에 돌입했지만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 전주대자인병원과 남원의료원에 근무 중인 각각 1명의 전공의들도 업무중단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을 무단결근으로 규정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86명 전공의 중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예수병원 76명의 전공의 중 2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들의 업무중단 및 근무지 이탈 현황은 집계 중(오후 3시 23분 현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한 전북대병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복지부 직원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나왔다.
이번 업무중단의 여파로 전북대병원

이에 보건복지부는 무단결근 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669명 중 646명도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원에 반대로 이날 휴학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휴학원은 아직 전북대학교 측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처럼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도내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전북의사회 등 전북의료인 200여명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의대증원 반대 투쟁’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바이오기업, 전북으로 몰려든다

의약품 제조하는 첨단기업과 주요 분야별 연구기관들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몰려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본부장, 정인성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장봉근 JBK LAB 회장, 김홍중 인헨스드바이오 대표,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개 기업의 투자협약 금액은 총 1,450억원으로 바이오 기업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협약은 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지금까지 유례한 바이오 기업들과 더불어 전북 바이오 산업의 규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JBK LAB · 인헨스드바이오 등과 협약 체결
총 1450억원 투자... 전북 바이오산업 규모화 기여 기대
전주대 · 기계연구원 등도 전북 주력산업 육성 뜻 모아

랠프 기술에 대해 세계 6개국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mRNA 백신/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전주대학교도 전북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의료용 나노기반의 고감도 스마트 센서와 소자, 양산형 미세유체 칩 설계 · 제조 기술, 인공지능 제작용 3D 바이오 프린팅 등 바이오 관련 분야의 기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전북도, 전주대학교 등과 협력해 바이오, 반도체 등의 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IT융합 · 전력변환 · 나노공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탄소 · 특수목적기계 · 이차전지 분야를 주된 분야로 공동 R&D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는 각 기관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수행 지

원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각 기관들은 분야별 인력양성과 정책 ·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신호탄으로 바이오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는데, 재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섯 번째 바이오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전북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거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은 물론 향후 전북 미래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투자협약에 이은 이번 바이오 투자협약은 전주시가 뛰어난 바이오 기술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전주시의 우수한 연구진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바이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천연물 기반의 가능성 바이오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기업인 JBK LAB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우리시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JBK LAB 장봉근 회장은 교통과 주거 여건, 인력 채용, 제조 인프라 등이 양호한 부지를 소개해 준 전북과 익산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전북의 아낌없는 지원을 디딤돌 삼아 천연물 기반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면서 “전북 레드바이오 단지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 전북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중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하고 앞으로 우수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기관-대학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익산=이재훈 기자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 전북대로 변경

10월 22~24일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장소가 전북대로 변경 확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9일 전북도가 전북대학교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장 변경을 요청한 후 행사장 점검 및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날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북대학교에서의 행사 개최를 결정했다.
전북대로 장소가 변경되며 행사장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일단 주 행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전시장은 대운동장을 활용해 구축할 예정이다. 기후 여건 등 야외 행

시장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형 임시 건축물을 조성하고 전기와 조명 시설 등을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삼성문화회관을 개폐회식 장소로, 실내체육관을 오·만찬 장소로 활용하고, 진수당과 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을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나가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우수한 대학의 시설을 활용해 극복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주의 강점인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에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연계한 대회를 준비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